

장성군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호응

557명 구성 '휴먼 행동단' 꾸려 현장 민원 접수·의료·제도 상담 지적재조사 현장 사무소도 열어

장성군이 주민에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557명으로 구성된 '휴(休)먼 행동단'을 꾸렸다. '휴먼 행동단'은 '군민이 편안한 장성, 먼저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주민 감동 프로젝트 추진단'을 줄여 만든 말이다.

공직자와 기관 직원, 자원봉사자, 전문가 55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장 민원 접수, 의료, 제도 상담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해 '찾아가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질 높은 행정을 펼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장성군은 최근 진원면 선적리 덕천마을회관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열었다.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 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마을을 찾아가 민원 접수를 도왔다.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신문고에 실었다. 장성군은 앞으로 범위를 넓혀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도 현장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육군 최대 군사학교 상무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14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업무시간 안 신고에 불편을 겪는 상무대 교육생을 위해 전입신고팀이 접수를 돕고 있다.



장성군이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꾸린 '휴먼 행동단'이 아연경로당을 찾아 '치매인지강화교육'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도 지역 곳곳에 차린다. 현장사무소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있다.

이달 중 소도마을회관(11~12일), 이문마을회관(15~16일), 생동경로당(17~18일), 선촌마을회관(22~23일), 신평·거마마을회관(24~25일)에서 차례로 열린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가사가 찾아가는 상담도 벌이고 있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 신청을 낸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

정평가사가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이의신청 기간에 맞춰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고령 주민의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인지강화교실'도 운영한다. 치매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65세 이상 주민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체조, 인지 연습장, 공예교실, 원예요법 등 다양한 수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의 삶을 지원하는 데 행정의 존재 이유가 있다"며 "장성군 찾아가는 행정 브랜드 '휴먼 행동단'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능주전통시장-농협로컬푸드 상품권 교환 행사

화순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협약

화순 능주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인 능주농협로컬푸드가 다음 달까지 '상생'을 위한 상품권 교환 행사를 연다.

능주전통시장은 지난 9일 능주농협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약(사진)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은 구북구 화순군수와 노종진 능주농협 조합장, 문정수 상인회장, 전통시장 상인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능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개장 1주년을 맞아 전통시장과 지역 상생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능주농협로컬푸드와 능주전통시장은 1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30일 동안 상품권 배부 행사를 연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5만원 이상 사면 능주전통



시장 이용권 3000원권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시장 이용권 3000원권 2장을 준다. 지급된 이용권은 다음 달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고급리·고급가로 인해 지역 상권이 위축하는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 주민들이 지난 9일 죽녹원 앞에서 열린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에 참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24일까지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담양군이 오는 24일까지 12개 읍·면에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펼친다.

담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9일 죽녹원·관광제림을 시작으로 주민들과 치매 극복 걷기를 진행하고 있다.

걷기는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 중 하나이다.

걷기 참가자들은 '치매 파트너'로 등록된 뒤 치매 예방 정보를 받고 '치매 안심 지킴이' 활동도 하게 된다.

치매 안심 지킴이는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하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닷새간 7만6000명 몰렸다

14일까지 남미륵사 일원서 열려

올해 처음 열린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 축제'가 개장 닷새 만에 전년보다 88% 늘어난 7만6000여 명의 관람객을 맞았다.

강진군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9일간 남미륵사 앞에서 '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축제 기간 평일에도 오전 일찍 행사장으로 들어 서려는 대기 줄이 길게 늘어졌다.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지난 10일에는 군동면부터 축제장까지 3km 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강진원 강진군수와 공무원들은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진군은 45인승 버스 3대를 투입해 관람객들을 축제장 입구까지 운송했다. 행사장의 진출입로는 일방통행으로 조정해 축제를 즐긴 관람객들이 신속하게 돌아가도록 했다. 하지만 관람객의 발길이 잇따르며 이날 오후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만개한 서부해당화를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농특산물 판매하는 '할머니 장터'는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갔으며, 남미륵사 입구에 마련된



오는 14일까지 강진 남미륵사 일원에서 열리는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 축제를 찾은 상춘객들이 봄의 절정을 즐기고 있다. <강진군 제공>

벼룩시장 '강진만 노을장'도 꾸준히 손님을 맞았다. 이곳에서는 수공예 제품과 병영 설성까페 라떼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최근 닷새간 탐진사인부녀회의 꽃동네 주막촌과 초록민음(농특산물), 노을장은 총 2562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을장 안쪽에 자리한 봄소풍음악회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축제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병영면 식당들도 손님이 몰려 재료가 일찍 소진되기도 했다. 공공배달앱 '떡까비'를 통한 강진 읍식점 매출은 지난주보다 70% 늘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립도서관 '도서관 주간' 다채로운 행사

장성군립도서관이 '60회 도서관 주간'(12~18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 주제는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망 중입니다'이다. 이 문구는 구지연 장성군립중앙도서관 주무관이 대국민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뽑힌 수상작이다.

장성군립중앙도서관은 4세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요리조리 별문 셰프의 동화 이야기' 공연을 펼친다.

명작동화 내용을 '미디어 미술'을 이용해 재창작하거나 '풍선 예술(별문 아트)과 구연동화로 구성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성인 대상 '꽃잎 조명등 만들기' 특강도 운영한다. 자연 소재 라탄을 이용해 집안 분위기를 살리

는 조명등을 만들어 본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설레는 봄'이라는 주제를 지니고 '어린이 북 큐레이션(주제별 도서 전시)', '당근 유치원' 원화 전시 등도 진행한다.

1964년부터 시작한 도서관 주간 포스터 20여 점을 만나는 전시도 마련된다.

삼계도서관에서는 '삶-고통'이라는 주제로 성인 대상 인문학 특강을 운영한다.

북이도서관은 성인 대상 '스트레스 타파! 힐링보드게임'과 '꿈과 성장'을 주제로 한 도서, 수강생 작품 전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립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도서관팀(061-390-8491)에 문의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